

지방 공기업

“U대회 선수촌 이달 완료할 것” “모든사업 도민 이익부합 최우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올해로 창사 22주년을 맞은 광주도시공사는 올 한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조성, U대회 선수촌 건설사업, 진곡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또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본격추진 등 공사의 미래를 좌우할 막중한 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취임 7개월차를 맞은 조용준 사장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조용준 도시공사사장을 만나 올해 사업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취임 후 7개월을 돌이켜 본다면

▲도시공사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초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선 시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일일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조성, U대회 선수촌건설 등 기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또 임대주택사업과 주택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두메마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시재생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공기업의 날 ‘대통령상’, 주거복지인대회 ‘대통령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사회공헌 대상 등 다수의 상을 받은 외부에서 인정받은 한 해였다.

-올해 사업들의 주요 방향은

▲올해 비전을 ‘사람 중심의 도시발전을 주도하는 초일류 공기업 창조’로 정하고 그에 대한 추진전략을 사업구조 혁신, 강소조직 구성, 재무역량 강화, 사회공헌 확대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목표를 미래 추진사업 확보, 영업수지비율 110%이상과 부채비율 200% 미만 유지, 나눔경영 확대 추진, 고객만족도 3위이내 유지 등 4대 전략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형·주민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운영사업의 전문화 및 고도화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 더불어 소규모 택지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첨단3지구 개발사업, 광주시 정책사업과 연계한 공공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계획 중인 사업들을 보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나, 공사의 자본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정부의 부채비율 관리목표(200%)와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 등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6000억원 수준이다.



호두메마을 도시재생 교두보 마련
혁신도시·진곡산업단 연말 마무리
미래 먹거리 발굴 지속 가능 경영

광주와 협의해 자본금을 확대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간의 단순한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유통화 등 다양한 형태의 첨단 금융기법 도입과 함께 민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 등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겠다.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우선 광주·전남혁신도시조성사업과 진곡산업단지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U대회선수촌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4월까지 건립을 완료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두메마을은 4월까지 준공해 5월초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이후 올 3월말 현재 전세대(590세대)가 입주했다. 또 하남2지구에 위치한 다사로울2차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전환하고 있다. 현재 분양률은 83%로 순조로운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하남2지구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해 9월 입주자를 모집해 총 299세대 중 현재 154세대를 분양, 51%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중 광주역 철도부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구 서림마을 행복주택은 도로개설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한 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동안 도시정책은 인구증가와 고용증대를 기대하면서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도시를 확장했다면, 이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심확대 보다는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소규모 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건축방식은 대규모 전면철거와 재건축에 의한 초고층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난 소단위 마을 공동체 복원에 중점을 둔 광주형 공동체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구 산수동 호두메마을 도시재생사업이다.

우선 광주시와 공동으로 구도심 공가, 폐가 밀집지역을 공동체 주택 시범지구(1개소)로 지정해 2018년까지 추진하고, 이어 2단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치구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취임 3개월을 맞았다. 양 사장은 취임이후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일절 하지않고 개발공사의 현안 점검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만 전념해 왔다. 3개월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그에게서 고민의 흔적과 공사 운영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양 사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보여준 원활하지 못한 정책결정과 수행방법이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철저하게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직접 운영해 본 소감을 듣고 싶다.

▲취임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들어와서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우선, 개발공사의 사업환경과 관련 법률, 제도가 불일치 하는게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사업을 많은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임대주택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공사의 경영성과는 현격하게 나빠지고, 정부(행정부)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게 돼 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사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사회·전남도·의회·여론(도민) 등 유관기관과의 절차 이행이라는 순서를 거친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의 무리한 요구와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방향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서로 상충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공익성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 도민을 위한 정책사업에 치중해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민간영역의 침범이란 질타를 받는 등 달레마에 빠지기 십상이다.

-취임 일성이 적자 사업장 매각이었다. 이 방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 그러나 적자나기 무조건 매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도정의 방침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아무리 많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때 공사의 역할이 필요했던 사업이었을지라도 목적을 달성했다면 민간영역으로 넘겨주는 게 옳다



경도사업장 매각 원칙에 변함 없어
영산재·오동재 위·수탁 경영 고려
거북선사업은 손실보더라도 운영

고 본다. 같은 적자 사업장이지만 땅굴호텔과 거북선사업은 다르다. 땅굴호텔은 도정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외엔 대안이 없다. 자산가치와 운영비용을 비교해 폐쇄라는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다. 거북선사업은 역사교육 현장이라는 면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운영하는게 맞다. 여수시와 진도군에 운영을 맡기고 지원하는 방법이나 부정기적인 운항 횟수를 정례화 해 수익개선을 모색하겠다.

-골프장 등 경도사업장은 매각 방침에서 투자유치쪽으로 선회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매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 다만 매각 준비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복합리조트 신규지정을 발표함에 따라 절차를 일부 변경한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경도리조트는 복합해양관광단지,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관광문화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민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해 우선순위를 바꾼 것 뿐이다. 여수 경도는 초기 투자가 이루어져 골프장과 콘도가 운영중이고 위치 측면에서도 유리해 복합리조트 선정 가능성이 있다. 지역 균형개발이란 정치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한 선정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복합리조트 선정의 전제조건이 1조원의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영산재와 오동재 등 한옥호텔은 계속 직영할 생각인가.

▲영산재와 오동재는 함께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전문 경영기관의 위·수탁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영산재는 주변 부지를 활용한 부대시설 및 객실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 오동재는 고급 브랜드 숙박시설이란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 부대시설 확충을 통한 경영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역시 문제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른다.

-지금까지는 남약과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캐시카우(수익 창출원)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어떤 곳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생각인가.

▲앞으로도 택지조성사업은 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공급위주 방식에서 탈피해 100만㎡ 미만의 시장수요에 맞는 면적을 개발하기 위해 대상사업지를 모색하고 있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는만큼 이 분야에서 특화할 생각이다.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입지선정 등 단지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여수 경도에 추진중인 해수담수화 실증단지와 연계한 복합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풍력 단지설계에 참여할 생각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3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창사 63주년

광주일보 63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전남도립대학 산학협약식

캄보디아 봉사활동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
1·2기 친선골프대회

광주일보 창사 63주년을 축하합니다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문병재 (주)국도정보기술산업 대표) 원우 일동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WANGJILBO LEADERS ACADEMY